통권 409호

2017 9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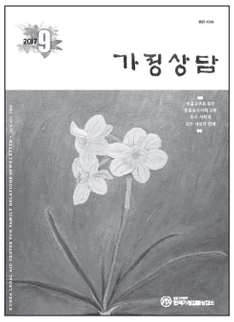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상담소는 본소 강당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설 역사 전시실인 'Since 195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를 개관하였다. (관련기사 28면)

본소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한마음가족캠프'를 열었다. (관련내용 13면)

가정상담1709 2017.9.7 2:37 PM 페이지3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4 • 이 달의 메시지
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❶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9 • 가정폭력상담실
13 • 교육부
17 • 결혼과 인생(175) 만화일기
가을 햇 빛 _ 장차현실
18 • 인터넷 상담
19 • 좋은 책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20 • 임상실습 소감문
28 • 상담소 소식
30 • 지부 소식
32 • 상담통계
33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7. 9.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급변하는 가족 문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이 필요 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얼마 전, 신문에서 '출산절벽' 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것도 지나 우리나라가 '출산절벽' 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월별 출생아 수는 매달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8월 23일에 발표된 6월 집계에 의하면 마침내 3만명 아래로 내려앉았고, 감소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또한 모 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일인가구는 506만 가구로 26.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의 226만 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이 추세라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일인가구가 34%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네 집 가운데 한 집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그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일인가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유행하는 말에는 세태가 담겨있습니다. '혼술' 이니 '혼밥' 이는 하는 말들이 처음에는 우리 정서나 문화에 익숙치 않아 조금 당황스러웠으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제목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일 정도가 되었으니 작금의 우리나라 일인가구 현황을 보면 그 말에 담겨 있는 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세대 이상의 시간 동안 가족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써 최일선에서 가족의 문제들을 접해 온 상담소로서는 언제나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가정,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올바른 가족 정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낮은 혼인율, 높은 이혼율,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 그리고 일인가구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은 이미 일찍부터 상담소에서 예견해온 가족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혹은 현상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혼(부)모, 미성년 비혼모,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일인가구, 다문화가정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정 형태에 맞춰 각 유형의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적절한 복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본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이대로라면 과연 '가족' 은 유지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기초단위로써 가정과 가족제도는 이어질 것 같지만 그 형태나 이념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또한 – 어떤 형태이든 – 가정, 가족의 문제와 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권의 보장과 행복의 추구라는 우리 사회의 목적을 바르게 추구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제 특히 비혼(부)모, 미성년 비혼모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정권을 지내면서 가족정책 전담 부처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어야 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인구문제에 대해 실패했던 것이 지금 저출산, 출산절벽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가족문제에 대해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문제와 관련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상상조차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족문제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외연만을 확대하는데 치중하거나 또한 일부의 소문처럼 성폭력,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문제 등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그 주제들로 일회성 이벤트 사업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업들은 차제에 과감하게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는 새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과 정책적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정책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 구현, 사회의 안정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진정한 가족정책이 검토되고 수립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❶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1956년 8월 25일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법률상담소'로 창립
1961년 첫 출장상담 실시

"8월 27일(월) 상담 제1일이다. 9시부터 기다리던 여인이 제1호로 접수되었다. 상담하러 온 사람은 모두 일곱 명이었으나 여섯 건밖에 접수하지 못했다. 모두 여성법률상담소의 개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온 분들이었고,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나를 울려주었다. 좀 더 일찍이 있었어야 할 상담소의 개설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여성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 상담소 첫 날 일지

1956년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입구 사거리(중구 남대문로 1가 93번지)에 소재한 여성단체총회관 회의실에서 여성법률상담소 개소식이 진행되었다. 여성문제연구원 원장 황신덕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법률상담소의 개소를 치하했고 이태영 소장과 상담위원 소개에 이어 이태영이 작성한 여성법률상담소의 취지문이 낭독되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해방을 누린지도 벌써 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성단체들이 나타나서 거의 질식상태에 빠진 여성의 전반적인 후진성을 극복하기에 노력하였고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상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남성과 동등한 법률상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본위의 가족제도는 현행 민법상으로 여성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이 아직 대단히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면에 있어서도 여성 자체가 아직 봉건사상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낡은 관습에 붙잡혀서 이미 자기에게 부여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여성으로서의 인격적인 지위를 차지할 줄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여성문제연구원은 창립 이래 오늘까지 근 4개년 동안을 형법전이나 민법전의 제정이 헌법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한 편으로 본원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성을 법률상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큰 과제로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년의 숙망이 이루어져 오늘에야 여러 번민하는 여성들의 진실한 반려가 되고자 했던 본원은 여성법률상담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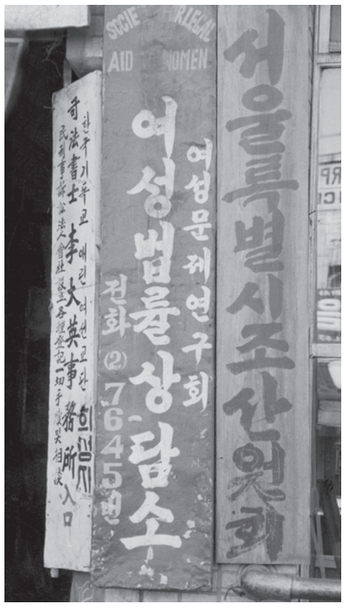
눌리고 밟히던 많은 여성들이 법률적인 무지로 인해서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고 비분함을 억제할 수 없어 죽음을 택한 여성들이 그 얼마이며 법에 호소하고자 원하되 그 절차를 알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려 해도 용이하지 않아 망설이다가 주저앉은 여성들은 그 얼마이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펴지 못함을 한없이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서 뜻 깊은 8 · 15 11주년을 계기로 우리 여성법률상담소는 세워졌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히 눌림을 받는 모든 여성들의 상담자가 되려고 나선 여성법률상담소는 여성이 완전한 한 인격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밖으로는 민법전의 제정에 힘쓸 것이며, 안으로는 여러 여성들의 법률상의 제문제에 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는 여성법률상담소가 8 · 15 해방 11주년을 계기로 발족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제강점에서 해방되었으나 수천 년 동안에 걸친 관습과 편견의 질곡에 매여 있는 여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법률상담소의 창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1952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태영 선생이 바로 그 사람이다.

고등고시에 합격한 이태영 선생은 판사를 지망했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집 마누라[1]를 어떻게 법관을 시키느냐"며 임명을 거부하여 변호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태영 선생으로서는 원치 않은 변호사의 길이었으나 이로 인해 우리 사회 법률구조의 길이 열린 것이니, 이는



1) 이태영 선생의 부군은 독립운동가로서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정일형 박사(1904~1982)이다.

역사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사건' 이었다.

처음 이태영 선생이 자신의 집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을 때, 여성 변호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성들이 밀려들어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태영 선생은 이들에 대해 실제적이고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게 되었다.

'법률상담' 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에 이태영 선생이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구조기관을 세워야겠다는 구상을 자연스럽게 가다듬었던 계기는 이렇게 불행한 여성들과 함께 울고 고통 받으며 2년 동안 색다른 변호사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길이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니고 고난 받는 여성들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구제에 있다는 판단이 서자 여성법률상담소를 차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무관심과 냉대의 벽에 부딪혔다. 이태영 선생은 이것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공익의 성격을 띤 사업이므로 법률상담기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여성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으며 여기에 여성문제연구원의 황신덕 선생만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성문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법률상담소 창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상담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할 장소와 그곳에서 상담을 맡아줄 사람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과 시설이 필요했다. 이태영 선생은 평소의 교분 등을 통해 호소하고 또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아래와 같은 상담위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병관, 김춘봉, 계창업, 방준경, 양대경, 오승근,
장병철, 장영목, 최백순, 최순문, 한세복, 홍승만
(이상 변호사)
김윤행, 조규광 (이상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흥수 (지방검찰청 검사)
정광현 (서울법대 교수)

여기에 이태영 선생을 더해 18명의 상담위원으로 상담소는 출발하였고, 8월 27일 첫 날의 일지처럼 상담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담자는 몰려들었다. 일은 고되었지만 이태영 선생이 처음 우려했던 부분 즉 '한국 여성들이 내 안방은 찾아올 수 있었고 내 개인 사무실에는 찾아올 수 있었지만 서울의 네거리에다 문 열어놓고 오라고 할 때에 자기네 친정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사연을 얘기하러 올 용기가 있을까' 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내려진 것이다.

여성법률상담소는 1960년 4월 13일 사무실을 을지로 입구 여총회관에서 태평로 삼영빌딩으로 옮겼다. 짧은 거리의 이사였지만 새 사무실로의 이전은 상담소로서는 의미가 깊은 일이었다. 그것은 여성문제연구원의 품안에서 자라난 상담소가 이제 그 보호 밖으로 나가 실질적인 자립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소 이전과 1960년 4 · 19혁명을 기점으로 5 · 16 쿠데타까지 사회적 격변이 이어지는 혼란 상태가 겹치면서 상담소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앉아서 찾아오는 내담자를 기다리는 형식을 넘어서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찾는 출장상담도 간헐적이나마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보수적 관습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꺼리거나 상담소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리고 상담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출장상담이 값진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상담소는 1961년 12월 인권옹호주간을 맞아 보건사회부의 협조를 받아 첫 출장상담을 실시했다. 전매청 의주로 공장에서 처음 시작한 출장상담은 대부분 학력이 없고 가정적으로 불우한 여성 직원들이 남성들의 바람기에 희생된 사례들이었다.

이 해에 처음 실시한 출장상담은 상담소가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불우한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꾸준한 출장상담과 순회상담 그리고 국내외 지부설치 등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소의 출장상담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의 출장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집부

가정상담1709 2017.9.7 2:37 PM 페이지9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청각장애인 상담 위해 수화 통역 및 장애인전문상담가의 개입으로 적절한 소통의 시간 마련

2016버1*** 처분전 상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1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0. 6. ~ 2017. 4. 20.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7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2세 쌍둥이)이 있다. 부부는 성격차이, 행위자의 채무와 음주문제, 늦은 귀가, 가사 및 자녀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다툼 중 서로 폭언과 폭력을 해왔다. 행위자는 2016년 5월 사건당일 아침,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으며 처분전 상담으로 본소에 6개월 상담위탁 되었다.

부부는 그동안 다툴 때마다 이혼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본 건 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본소를 찾아 이혼 및 소송구조 관련 상담을 하고 소송구조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본가에서 지내면서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와의 갈등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담 초기, 부부에게 서로 원하는 바를 정리해보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경제습관과 음주문제 개선, 시가 식구 내방 시 사전 고지 등을, 행위자는 피해자의 폭언, 부부싸움 후 출입문을 잠그는 문제, 행위자 출근에 지장을 주는 문제 등의 개선을 희망하였는데, 부부는 배우자의 희망사항을 수용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부부는 부부캠프에 참석하였고, 행위자는 비폭력대화법 등 교육강좌를 수강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야간에 진행한 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도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려 지속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행위자는 집단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부부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종결 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횟수와 음주량이

줄었고, 예측하지 못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찍 귀가하여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 초에 부부가 서로 약속한 것을 실천한 결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였다. 행위자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개선하게 되었으며,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향후 재발가능성도 희박하다.

사건번호 2016버1***/2016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2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1회,
부부상담 2회,
장애인전문상담가와 수화통역사가 함께 한
부부상담 8회,
자녀 미술치료프로그램 8회 등 총 24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1. 11. ~ 2017. 4. 20.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4년 되었고, 본 건 발생 후 협의이혼을 하고 사실혼으로 지내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 1남(5세)이 있다. 중국인이었던 아내는 10년 전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왔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부부 모두 이혼 경험이 있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여 재혼하게 되었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아내가 농아이며 청각장애인인데 남편은 수화를 못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갈등이 심하였다. 2016년 5월 사건 당일, 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아내가 남편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남편의 안경을 벗겨 테를 부러뜨렸으며, 같은 날 마트에서 남편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남편도 아내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부부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소에 위탁된 남편은 장애가 있는 아내와의 부부상담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아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을 숙고하던 재판부가 본소의 건의에 따라 아내를 본소에 상담위탁 보호처분 하여 부부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부는 본 건 발생 후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이혼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부부상담 결과 장애인전문상담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수화통역을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부설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소속의 수화통역사를 요청하여 상담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장애인전문상담가가 야간에만 상담이 가능하여 목요일 야간에 부부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자녀도 동반하여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아내는 기본적인 눈높이 장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교육의 기회가 없어 생활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뒤쳐지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피해의식이 강하고 분노 표출이 잦으며 이해력이 부족하고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은 사고방식이 독특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부부 성생활에 자신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질지 모를 뿐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태도도 미흡하였지만, 상담을 하면서 배우고 싶다는 욕구는 강하였다. 이에 아내는 현재의 부부관계 내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이 취할 입장이나 태도에 대하여 숙고하도록 하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바라는 바를 수용하고 노력할 것을 상담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아내는 상담을 하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소리를 하면 알아듣는 듯 하고 손해가 되는 일이면 못 들은 척 하면서 통역사까지 조정하려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앞세우며 상식적이지 않은 아내 편을 들면서 때로는 상담자나 통역사를 탓하는 등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상담 초기에는 서로 상

대방에 대해 비난만 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으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탐색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를 세우고 평가하는 방법이 계기가 되어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는 따로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상대방의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아내는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남편의 옷을 세탁해주고 남편에게 속옷을 사주는 변화를 보였다. 부부는 자녀를 사랑하며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일치하여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였고, 남편은 수화를 열심히 배울 것을 다짐하였다. 아내가 수화통역자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장애인전문상담가의 개입을 통하여 적절한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본 상담의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사건번호 2016버4**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 자조모임 3회
부부상담 5회, 부부집단상담 6회, 부부교육강좌 1회,
부부캠프 2회 등 총 36회 실시

상담기간

2016. 10. 27. ~ 2017. 4. 2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7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1남(37세)이 있다. 부부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시가와의 갈등, 자녀 문제, 행위자의 음주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하면서 생활해오던 중 2016년 1월 사건 당일 밤, 행위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택시기사가 훔쳐간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2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행위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법원의 조사과정에서 자신도 상담을 받겠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행위자를 6개월간 피해자와 함께 본소에 상담위탁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행위자는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 상담에 회의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만을 토로한 반면, 피해자는 상담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에 행위자는 스스로 성실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다고 평가하는 결혼생활을 피해자 관점에서 돌아보도록 하고, 피해자는 결혼생활 전반 및 향후 인생 진로에 대하여 점검해보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행위자는 부부집단상담에서도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가 말을 할 때에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고 차분하게 대응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였고 행위자와 시가에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는 격앙된 모습으로 행위자를 비난하면서도 상담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였다. 분노다스리기를 다룬 회기에서 행위자는 현재 피해자가 보이는 분노 폭발, 우울증세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피해자는 결혼 초부터 쌓이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현재 문제의 원인이라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전과 달리 행위자에게 밥을 차려주는 등 작은 변화가 나타났으나 부부간 대화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이 여전하여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부부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였다. 부부집단상담을 마친 후 피해자는 자조모임과 교육강좌에, 행위자는 집단상담으로 분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부부 모두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종결상담에서 피해자는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폭력적인 성행도 교정되는 등 법적 제재로 인한 행위자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특히 행위자가 전과 달리 과격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조금이나마 생활

비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나아졌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전보다 거짓말을 덜하고 행위자를 덜 통제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였고, 법적 제재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부부는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부부 모두 외동아들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며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고려할 때 이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내는 상담종결 이후에도 자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부부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내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사건번호 2016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자조모임 2회,
부부 교육강좌 1회 등 총 27회 실시

상담기간

2016.11.9. ~ 2017. 5.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3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32세, 28세)이 있다. 2016년 6월, 1박 2일로 여행을 간 부부가 귀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재판부는 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상담위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성격차이, 경제문제, 행위자의 음주문제, 시가와의 갈등을 갈등원인으로 꼽았고, 행위자는 성격차이를 갈등원인으로 꼽았다. 행위자는 본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지만 사건 이후에 절주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전의 1/10 정도로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줄였고, 취한다는 느낌이 들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담이 중기에 접어들 무렵 행위자는 인사이동으로 지방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행위자를 지방의 상담소로 연계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상담소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행위자가 격주로 집에 올 계획이어서 그에 맞추어 야간에 진행하는 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행위자는 비교적 성실하게 격주로 상담에 참여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처음에는 상담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상담에 참여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심적 치유효과도 있었다고 하였다. 집단상담에서 많은 부부의 사례를 접하면서 부부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었으며, 배려하는 마음과 대화법, 특히 아내에게 일방적인 통고는 절대 금지라는 사실도 배웠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피해자와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부부가 주중에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 함께 지내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고, 충돌할 일이 줄었다고 하였다. 다만, 채무변제를 이유로 행위자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피해자가 소득활동을 하여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과거 소득활동을 하다가 행위자의 반대로 그만둔 적이 있는데 이번에 행위자와 합의하여 소득활동을 재개하였다. 종결상담 시, 피해자는 일정 부분 행위자의 변화를 인정하였지만, 보호처분이 종결하여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염려하는 등 행위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부부의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일치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개선된 인식과 태도가 향후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므로, 폭력재발가능성은 희박하고 부부관계 역시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가정상담1709 2017.9.7 2:37 PM 페이지13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긍정적으로 다시 바라보기

- 일 시 : 2017년 8월 26일(토) ~ 27일(일)
- 장 소 : 더케이(The-K)호텔, 서울
- 참가자 : 부부 15쌍, 자녀 26명 등 총 81명
- 강 사 : 우애령 강사 (작가, 현실치료 전문가)
  노재광 강사 (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이영옥 소장 (트리인마인드 예술치료교육연구소장, 미술치료전문가)
  최정아 소장 (트리인마인드 예술치료교육연구소장, 무용치료전문가)
  김미지 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동작치료전문가)
  김다은, 주자경 보조강사 (트리인 마인드 연구소)
- 진 행 : 조은경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 자원봉사자 9명

프로그램 개관

1일차 8월 26일 (토)

「 부부를 위한 댄스테라피 」

▷ 강사 : 최정아 소장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김다은 보조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강사는 우선 참가자들이 자기소개 및 자기 칭찬하기를 통해 자신이 내는 목소리로 스스로에 긍정성을 부여하고, 신체 터치 및 돌봄 움직임을 통해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부부 서로에게 전달 되도록 하였다.

리듬을 타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의 경험으로 내면에 있는 즐거움과 긍정적 에너지를 경험하고, 파트너 보호 움직임을 통해 부부간의 경계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익혔다. 또 눈을 감게 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끄는 대로 전적으로 몸을 맡겨 동작을 취하고, 서로 비언어적 지지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특히 눈을 감은 뒤 배우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동안 상대를 오롯이 느끼도록 하는 순간에는 참가자들이 몰입하여 숙연해지고 서로에게 감정이입 되는 경험을 통해 부부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동프로그램

「 웃음놀이학교 」– 미취학 아동 대상

▷ 강사 : 노재광 강사 (아하 교육컨설팅)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웃는 아이, 행복한 아이'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풍선놀이, 볼놀이, 비누방울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하며 긴장을 풀고 다른 아동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협력하여 놀이를 하면서 협동심, 규칙에 대한 이해, 유능감을 경험하고 공동체의식과 자신감을 고취하며 신나게 웃는 시간을 가졌다.

「 동작놀이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

▷ 강사 : 김미지 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너와 나, 쉘 위 댄스' 라는 주제로 동작놀이 시간을 진행 하였다. 참가 아동들은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 후 신체탐험, 감각 깨우기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던 아이들이 점차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적극 참여 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얼음아이스크림 놀이를 통한 눈인사와 반가워 놀이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친밀감을 느끼고, 나 · 너 · 우리만의 징검다리 만들기, 내 자리 찜 콩!, 신체로켓 놀이, 팅팅탱탱 튕겨튕겨, 너와나 쉘위댄스, 우리들의 왈츠 등의 신체활동 놀이를 통해 그룹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간인식과 신체조절을 통해 안전한 환경의 룰을 만들어 타인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표현하는 법을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 · 행복해 · 소원을 말해봐 라는 게임을 통해 오늘 프로그램을 참여한 소감을 발표하며 마무리 하였다.

「 공작놀이 」–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대상

▷ 강사 : 이영옥 소장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주자경 보조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작놀이 시간에는 '나만 아는 비밀공간, 미로' 라는 주제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생겨난 자신만의 비밀이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마음 속 비밀들이 많아질 때 잠시 힘들고 무거운 비밀들은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번 활동은 자신만의 비밀장소로 가는 통로인 미로를 새로운 방법과 재료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사춘기에 저어든 아동들이 자신 만의 비밀을 어

떻게 건전하게 보유하고, 또 발산할 수 있는지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2일차 8월 27일 (일)

「배우자의 성격과 나의 성격 알아보기」

▷ 강사 : 우애령 강사 (작가, 현실치료 전문가)

강사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이 가진 욕구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하며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사는 부부간에 이러한 욕구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성격의 서로 다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것이 바로 성격차이가 되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직접 욕구강도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배우자와 서로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욕구와 배우자의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라도 갈등이 있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갈등이 완화되기도 하고 심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갈등을 완화시키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의 욕구에 대해 알아본 뒤에는 상대방의 욕구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화의 목적은 서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방법을 배우기 위해 상담자-내담자 롤플레잉을 통해 강사가 내담자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교정해주었고,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27일 아동 프로그램

「동작놀이학교」 – 미취학 아동 대상

▷ 강사 : 김미지 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주자경, 김다은 보조강사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정글 속 소원나무' 라는 주제로 진행된 미취학 아동 대상 동작놀이 학교에서는 안녕 안녕 친구들아 안녕, 레인보우 내자리 찜,콩! 마법의 문아 열려라!, 구름사탕 낙하산 놀이, 나르는 양탄자 놀이 등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해서 멈추는 활동,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등을

체험하였다. 또 징검다리 만들기, 그대로 멈춰라 조각상, 정글 숲 소원나무 탐험.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줘, 즐거워 · 고마워 · 사랑해 인사 등의 활동을 통해 순서를 기다리고 타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집중하였고, 모둠별로 친구들과 징검다리를 만들고, 우리들만의 정글숲을 만들어 표현해 보았다.

이처럼 공간을 탐색하고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취감과 표현력, 협동심을 배웠고 마지막으로 소원나무에 소원을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 웃음놀이학교 」 – 초등학생 아동 대상

▷ 강사 : 노재광 강사 (아하 교육컨설팅)

참가아동들은 한명씩 나와 자기소개를 하면서 친밀감을 쌓았고 팀을 나눠 간단한 체조와 숨바꼭질, 수건돌리기 게임 등 활동적인 놀이를 하며 긴장을 풀었다. 이어 눈치게임, 가라사대 게임, 릴레이게임, 피구 등을 하며 협동심과 성취감을 경험했고, 특히 팀별로 점수를 매기면서 진행하여 아이들의 집중력과 배려심을 배우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소감

참가자들은 평소에도 늘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이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바빠 서로 안마해주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캠프를 통해 다시 한 번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자녀들과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가족간의 친밀감을 다지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 그동안 잊고 있었던 부부간의 친밀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남편의 입장을 좀 더 헤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가족 간의 좀 더 디테일한 사랑의 표현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서로의 차이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부부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거리를 지키며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마음 편하게 웃으며 댄스테라피나 교육강좌를 통해 배우자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모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말이나 행동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 저희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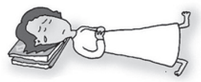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부부관계 뿐 아니라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과 공동의 이야기를 갖게 되어 가족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하던 참가자가 매우 인상 깊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부부가 참석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은경 상담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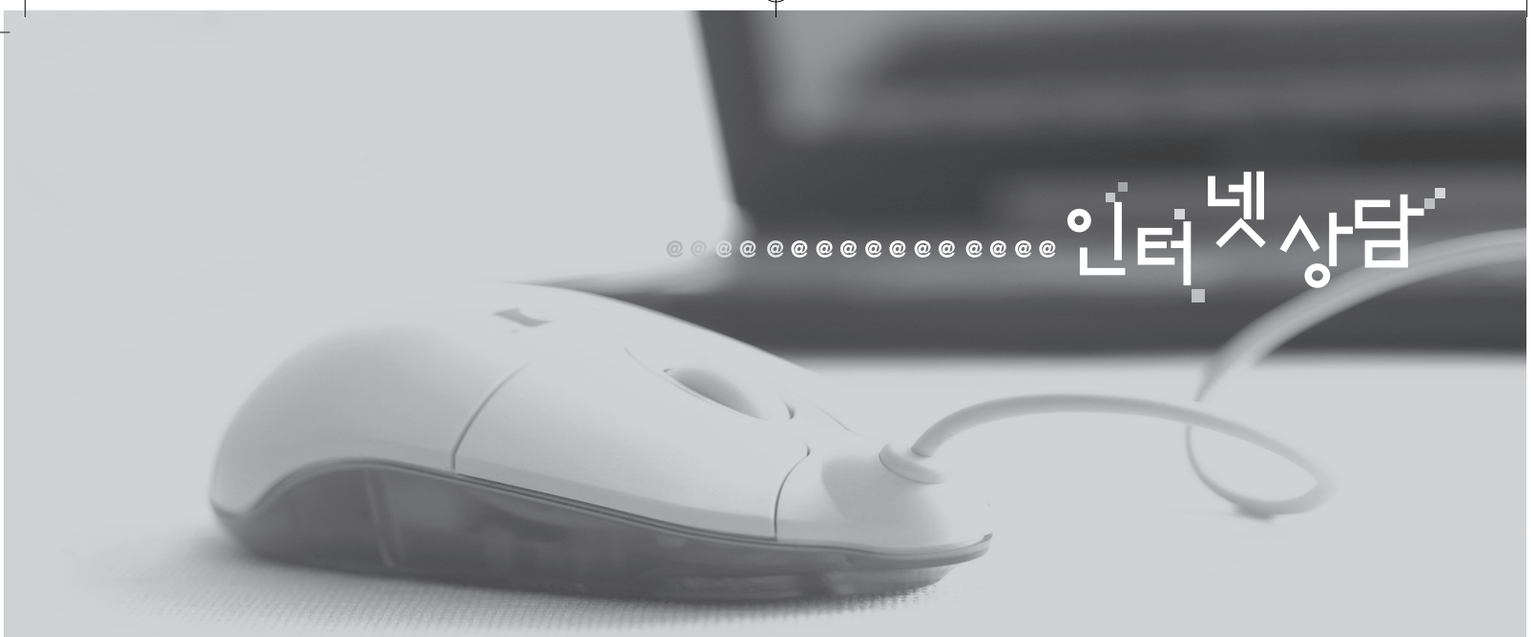
결혼과 인생(175)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77

가을 햇 빛



글 | 그림 | 장차현실



인터넷 상담

저희 부부는 혼인 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모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니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인 것처럼 다시 출생신고 하였고, 출생신고 당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아이의 친부모들이 인우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저희 사정을 잘 아는 분과 상담을 하니 추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와 저희 부모 사이에 입양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Q

A

귀하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양친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서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 외에 진실한 출생신고가 있어 이중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실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합니다(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 예규 제2조 각 참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합니다(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제2항, 제3항 전문 각 참조).

그런데 민법 상 입양을 한 경우라도 양자도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이후 별도의 양자에 대한 성본변경 심판 청구를 통하여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고, 개명을 통하여 이전까지 사용해 오던 이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좋은 책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정희진 엮음
권김현영, 루인, 류진희, 정희진, 한채윤
교양인 2017

정희진이 쓴 이 책의 '들어가는 글' 첫 문단을 인용해 본다.

"인간은 애초부터 양성(兩性)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등의 기준이 남성일 때 여성에게 '양성평등'은 평등이 아니라 이중 노동이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다. 따라서 이 책은 '여성주의(feminism) =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오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목표로 삼는다."

이 책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성문화(性文化) 연구 모임 '도란스'가 내놓을 기획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도란스는 트랜스(trans)의 일본어식 발음으로 한국의 근대가 일제와 미국의 혼재라는 현실을 상기하고자 하는, 탈식민 노력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대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는 성차별이 있는 현실을 다시 증명해야할 처지가 되었다는 부분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가부장제 비판과 남녀 차별을 극복하는 바탕이 되는 개념으로서 여성주의의 주요한 전략이었지만 최근 들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화 중 하나인 '여성혐오(misogyny)'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남성혐오'로 명명되면서, 성을 '남성/여성'의 대칭적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양성평등 담론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한사람이 쓴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국 사회의 성차별 인식을 결코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남녀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이중 구속의 현실을 들추어내고, '비정상' 혹은 '소수자'라 불리는 젠더 규범 외부의 존재들을 억압하는 권력을 드러내며, 한국 개신교의 유별난 동성애 반대의 감추어진 이유를 밝히고, 미성년자 의제강간법을 통해 규제 중심의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분석하였다. 또한 메갈리아 미러링 논쟁을 통해 새로운 페미니즘 주체의 출현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 주제들은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 책에 실린 글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 정희진
음란과 폭력을 다시 생각한다 – 루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 권김현영
그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말, 메갈리아 미러링 – 류진희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 한채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저런 수다 끝에 한 친구가 "아들은 일베를 하는지, 딸은 메갈을 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때야"라고 한탄을 했다. 모두들 일베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지만 메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미소지니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검색창 첫 카페 글에 이런 제목이 떡하니 떠 있었다. "'미소지니' 쓰는 년은 메갈임"

지금 우리 사회가 성차별의 현실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소에서 실습을 마친 학생들의 후기를 요약하여 싣는다.

오 수 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직접 뵐 수 없었던 소외 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을 통한 권리 실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분들을 직접 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분들에게 이러한 법률구조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법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직접 수습생으로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상담 참관, 인터넷 상담, 소장 작성,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상담을 참관하면서 내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상담자로서 어떻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또 때로는 내담자가 직접 묻지 않더라도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담 과제의 경우, 내담자 분들이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면 상담의 경우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상담은 그러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담자는 더욱 더 분명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직접 질문한 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사항을 답변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직접 이혼 및 양육권, 위자료 청구 사례에서의 소장을 작성해 본 것도 기억에 남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는,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이라는 통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전화가 매우 중요한 상담 통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소에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을 뵈면서,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의 가졌던 초심을 잃고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위 평 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끔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큰 소리가 오갈 때는 많이 겁도 났었다. 어른이 된 후에는 어느 정도의 가정불화는 없을 수 없고 오히려 당연한 현상임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 그것이 너무 싫었고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의 가정구성원들이 겪는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나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 많이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실무수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가정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소송구조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주된 것이었지만, 위와 같은 어렸을 때의 개인적 경험 역시 작용했다.

2주간의 실무수습은 접수안내, 전화상담, 상담참관, 가정법원 출장 상담참관,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 참관, 상담참관 보고서 작성, 법률구조서류 검토, 소장 작성, 인터넷 상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의 경우, 직접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

고 간단한 안내 정도만 하는 것이었지만, 전화주신 분들의 사정을 계속 듣다보면 공감도 되고 걱정도 되고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강해져서 실무수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상담참관의 경우, 내담자들의 질문과 상담위원님의 답변을 꼼꼼히 들으면서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상담참관을 기회로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족법을 공부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상담위원님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정법원 출장 상담은 가정법원에 견학을 가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좋았고, 하루 종일 다양한 가족법 사건들을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각종 소송 · 심판 관련 서류들도 직접 볼 수 있었고, 같이 가신 상담위원님과 틈틈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바로바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중간에는 잠시 이혼 관련 재판을 방청할 기회도 주셔서 매우 감사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소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송서류를 검토하면서 소장을 작성하고, 인터넷 상담에 대해 고민하면서, 가정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도서실에서 소송구조 서류 및 가족법 관련 서적들을 참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실무수습 환경을 제공해주신 상담소 소장님과 부장님 및 상담위원님, 친절하게 도와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 하 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담소에 오기 전에는 실무수습이 처음이었고 가족법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상담소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즐겁게 2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과제로 소장쓰기, 상담참관, 인터넷상담 답변쓰기 등을 하였는데 과제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소장쓰기는 처음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과제였습니다. 지난학기에 '법문서작성' 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때 썼던 소장이 쓰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소장' 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어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장과제를 받은 후 다음 날 여러 종류의 법률서류를 검토하고 공부하면서 이혼, 위자료, 친권자 · 양육자 결정 등에 관한 소장은 이렇게 쓰는구나를 직접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과제를 받은 바로 다음날 법률구조서류 검토가 일정에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후 용기를 내어 쓰기 시작하였는데 미흡하지만 하나의 소장을 다 완성하고 보니 조금 소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족법 사건 뿐 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소장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건 사실에 맞추어 천천히 생각하여 쓰면 되겠구나 하는 자심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상담참관이었는데 상담참관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참관을 해보기 전에는 무조건 내담자의 모든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참관을 하면서 내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법률적으로 내담자를 도와주어야 하므로 내담자의 말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골라내고 추가로 질문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담자의 말을 듣고 추가로 질문하는 그 능력이 바로 제가 앞으로 공부하여 배양해야 할 능력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담 과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텍스트만 있고 추가로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내용으로 질문자가 질문하고 싶은 바를 알아내야 하고 그에 따라 상황별로 맞춤형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5가지 각각 다른 상황으로 이루어진 과제를 주셔서 민법책을 찾아보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수업으로 들었

을 때에는 그저 텍스트에 불과했던 내용도 더 생생하게 다가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3학기 동안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입학했을 때 가졌던 열정이 많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정말 이것이 나의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기분을 잊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후 기회가 된다면 백인변호사단에도 가입하여 상담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 진 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정법률상담소에 도움을 구하는 많은 분들의 존재와 체계적으로 부여되는 과제는 소심한 저를 어설프게나마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아 매뉴얼을 보면서 더듬더듬 답변을 하고, 상담 참관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어떻게든 일을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히며 어떻게라도 성과를 내려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며칠 전 서울가정법원의 출장상담 참관을 갔을 때 박소현 부장님께서 작성하기 쉬운 서면을 내담자를 대신하여 작성할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소장과제에서 배운 기초적인 틀을 생각하며 필요한 문구를 하나씩 적어가다 보니 어느새 문서 한 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그토록 고마워하던 내담자의 반응에 신나서 돌아온 저에게 오늘 보람찬 일을 했지 않느냐고 환한 웃음으로 격려해주시던 부장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주간의 실무수습 마지막 날, 이제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상담소에 왔습니다. 따스한 노란 불빛이 켜져 있는 상담소 6층에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상담소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상담소의 따스한 노란 불빛을 기억하며 보다 숭고한 목적에 헌신하는 법조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준 모

동국대학교 법학과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다. 먼저 전화상담 및 상담 참관 등을 통해 현실에서 어떻게 법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웠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책자와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이혼, 가정폭력,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이행 확보, 유언 및 상속, 개인 파산 및 면책에 관한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소송구조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다문화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들이 법률 서류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보조해 볼

수도 있었다.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현행 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에서 각 전문가들이 주장한 발표 토론문 등을 보면서는 가정폭력특례법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를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과 법원의 상담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때 화목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각 지부에서 수행한 소송구조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판결문 등을 사건 별로 분류하는 업무도 해보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백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 법무관의 상담도 여러 번 참관하였는데, 법률상담 업무를 앞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나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훗날 사회에 나갔을 때 여기서 배운 것들을 명심하여 사법 평등과 법률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싶다. 이곳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 이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강 수 지

동국대학교 법학과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집단 상담을 꼽을 것이다. 저녁 늦게 끝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고, 매주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의 프로그램이었다. 아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부 집단 상담과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밖에도 태어나 처음으로 소장을 써보던 날엔 스스로가 신기했다.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책을 정리하고 홈페이지를 정리할 때는 뿌듯했으며, 하루 종일 접수실 업무를 보조하던 날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즐거웠다. 법원을 찾아가고, 상담참관을 하던 날은 선생님들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엄마를 따라왔던 어린아이와 놀아주었던 사소한 기억까지 모두 한 달 동안의 소중하고 예쁜 기억이 되었다. 시작할 때는 길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겪어보니 짧았던 그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많이 도와주었던 언니, 오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뿌듯한 방학을 보내고 싶었던 나에게 이번 여름 방학은 잊지 못할 한 달이었다.

최 민 서

동국대학교 법학과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법률절차와 법률적용에 대해 막연함을 느꼈기 때문에 실무를 경험해보고자 여름방학 동안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주로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족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던 터라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실습 첫 주에는 '어떻게할까요'와 '가족법상식'을 틈틈이 공부하였다. 가정법원 출장 상담을 참관하면서 각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는 방법과 내담자를 응대하는 방법들을 배웠다. 참관했던 사건들 중에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따져야 하는 사건들도 있었지만, 간단한 절차나 서류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률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법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법률 구조 서비스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현장 실습을 하면서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실무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다. 하지만 법조문과 법적 절차상에 아직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비한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법학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실습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법률과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 정 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여기로 찾아오면 선생님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이 말을 하는 내담자의 뒷모습만을 보고 있었지만 충분히 뭉클할 만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서울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위원님의 상담을 참관하고 있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내부참관은 두어 번 했었지만 가정법원 외부참관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담자분들은 번호표에 따라 순서대로 들어오셨고,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에 대한 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 등에 대해 상담위원님은 막힘없이 상담을 해 나가셨다. 정확한 법률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 내담자들은 만족하고 상담실을 떠났다.

그 때, 40대로 보이는 뚜렷한 이목구비의 남성분이 서류뭉치를 가지고 들어오셨다. 들어오실 때 첫 인상은 매우 날카롭고 강해 보였으나, 눈동자는 고민에 둘러싸여 당장이라도 무언가 쏟아낼 것만 같았다. 정말 흔들리고 있었다.

그분은 약 2년여 동안의 소송과 항소 끝에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이혼을 한 분이었다. 상황의 요지는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형식적인 면접교섭의 횟수는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면에서 전적으로 아내에게 결정권이 있어 아이에게 매우 제한적인 면접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내담자는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해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결문, 조정문에 판시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의 범위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면접교섭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상담은 얼마든지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담이 끝나면 그만일 터였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상담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담자가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받는 일이 아니었다. 그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내담자는 이미 법원에서도 면접교섭이 이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납득이었다. 상담위원님은 내담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으며, 이후로는 어떠한 법적 조치나 절차 등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내담자의 심리를 바꾸는 데 중점을 두셨다.

상담이 끝난 후, 면접교섭을 지금 당장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떠나는 내담자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에도 무언가를 얻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한 달 간 전화상담, 상담참관, 소장 작성과 상담소의 일반업무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이 때 만큼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다. 이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곳곳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적 보호범위의 한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 되었다.

전 해 슬
동국대학교 법학과

평소에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던 것을 실무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되었으며 가족법의 개선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 보장, 가사사건 관련 각종 서적 편찬, 학교폭력 문제 해결 등 그 규모에 비해 많은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화 상담을 받던 중에 가정폭력으로 울면서 전화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급박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안내 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한 적도 있었고, 간단한 절차 안내만 해드렸는데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어 뿌듯하기도

했다.

다양한 사례를 통화로 접하면서 늘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니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법의 한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법률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현장학습에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학교로 돌아가서 법제도에 대해 더 공부할 때에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공부할 것이다.

이 윤 복
동국대학교 법학과

1학기 중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봉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고, 좀 더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현장 실습 신청을 하게 되었다.

상담소의 활동 분야는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것 이상이었다.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무료 대서 등의 업무 외에도 교육활동, 가족법개정운동 등 상담소 업무는 매우 다양했다. 가정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해 의식 개혁을 이루고 이를 통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면 단연 최선일 것이다. 이에 상담소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법률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내담자의 수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수기간 중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의 보조 업무를 하였을 때 매우 보람되었다. 중학교 3학년,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었기에 법률 교육에 벽을 느끼고 교육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학생들의 교육 참여 태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모의재판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며 눈을 반짝였다. 판례를 수집하고 관련 법조문을 분석하며 모의재판 대본을 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중학생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들은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머지않아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룰 것이다. 상담소에서 실시한 법률 체험 교육이 앞으로 좀더 나은 법률복지 사회를 만들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든데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연수를 마칠 수 있어 행복했다.

김 지 희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존재는 여름방학 현장실습생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예 몰랐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일을 해보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했다. 4주 동안 연수활동을 하였는데 현장실습생의 주요 업무였던 전화 상담을 수행하면서 내담자에게 간단한 서류안내를 했던 것부터 내담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나누었다.

우리나라 여권(女權)이 최근 많이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극히 일부인 우리 세대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도 느꼈다. 내담자분들의 대다수는 40대~60대의 여성분들이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가정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고 계셨다. 아직 한국사회는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존재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예산과 인력의 부족함을 겪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기도 했다.

하루빨리 여성들의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하여, 남녀가 가정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대한민국에 행복한 가정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짧다면 짧은 약 4주간의 현장실습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더욱 힘쓰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느끼게 된 소중한 연수기간이었다.

김 혜 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내가 법학과에 입학한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론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항상 남았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활동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과 지도하에 4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전화상담연수를 통해 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사실혼, 약혼, 혼인, 이혼, 상속 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적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능력과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과 소장을 정독 및 숙지,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가족법의 개정이 불가피함으로 느끼게 되었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법조인이 함께 나서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활성화될 때 가정 내의 부부 평등을 실현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번 연수활동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 여 운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여름방학 현장실습으로 본 상담소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내 안의 틀을 깨고자 함이었다. 평소 법 수업을 좋아했고 장래 법조업무에의 종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무는 전혀 접해보지 못 했을 뿐더러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학교 밖 경험이 전무했던 나에게 법률기관에서의 실습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도전이었다.

나를 지도해주신 선생님이 소송구조를 담당하시는 분이셔서 실습기간 중 내가 맡은 업무는 주로 이혼, 친권자지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에 관한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서류 원본을 복사하고, 첨부서류 목록, 의뢰인 정보, 청구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이었고, 선생님으로부터 두 번 정도 피드백을 받으니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법원상담기록 입력, 파산면책 패스트트랙신청서 작성, 전화상담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접해볼 수 있었다. 파산 및 면책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파산면책 패스트트랙신청서 작성법을 교육받을 때에는 너무나 막막하여 심적 부담이 매우 컸으나, 이 업무를 해본 다른 실습생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점차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이후에는 신청인과 그 가족구성원의 자산을 파악하고 채무 목록을 확인하고 채무증대현황을 파악하여 입력하는 일련의 일들이 두렵기 보다는 재미있게 느껴졌다. 전화상담 업무는 실습 중 가장 많이 그리고 꾸준히 한 업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힘든 업무이기도 했다. 다짜고짜 반말로 이야기하시는 분, 무례한 태도로 응하시는 분, 아주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셔서 방문상담을 권해드렸더니 바로 화를 내시던 분 등 여러 유형의 상담자분들과의 통화를 하면서 감정노동에 시달리기도 했고, 가족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더 깊은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틈틈이「가족법상식」책자나 서류안내파일을 공부하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현장실습 초에는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방학에 실습을 신청한 것이 후회되고 8월 말이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 상담소에 적응하고 선생님들께 배우며 업무에 재미를 붙이니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갔다. 내게 있어 연수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자산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인 것 같다. 상담소에서의 연수 기간은 학교생활만 해온 내가 과연 후에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 모습에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훨씬 많지만 부딪혀봐야지 하는 지금의 나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정상담1709 2017.9.7 2:37 PM 페이지27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성 혜 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스크랜튼 사회와 정의 트랙

학교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이수하는 등 이론적인 공부를 해본 것과는 별도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제 업무를 공부한 경험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히 저는 일을 시작한 7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인 파산 면책 의뢰서, 패스트트랙 신청서 작성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그 때 파산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뿐이었고, 실수투성이였지만 실무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족법 강의도 이전에 이수했었던 저였지만, 상담소의 도움이 너무도 간절한 전화주신 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드리기 위해 전화 상담에 앞서선 상담소 교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부정확한 지식으로 문의자분들에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했고, 법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더 갖추어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순간순간 들었습니다. 문의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사연에 공감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법률구조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전화상담 업무의 경우, 전화선 너머로 문의자 분들이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하실 때면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합니다. 특히 7월 첫째 주 처음 했던 전화상담 날에 친권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던 70대 분은 제게 '목소리 들어보면 젊은 것 같은데 정말 침착하고 친절하게 일러주어서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파산 면책 의뢰서, 패스트트랙 신청서를 여러 건 작성하면서도 느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아픈 사연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짐들을 안고서 힘겨워하시는 모습에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소장님 이하 상담소의 상담위원 선생님들, 변호사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앞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김 지 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현장실습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졸업 전에 이력서에 쓸 한 줄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조급함 이었다. 실습기관 목록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로스쿨 진학을 포기했던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했고, 경험이라도 해보고 포기하자는 마음에 지원서를 냈다.

상담소에서 맡은 주 업무는 전화상담과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보조였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황해서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했고, 이에 대해 상담자님께 죄송한 마음과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꾸준히 받다보니 법률지식도 점점 쌓였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전화상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드리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실습이 진행될수록 감정이 무뎌지고 자동응답기 같아지는 나를 보면서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자고 몇번씩 마음을 다잡곤 했다.

연수 업무 중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실습은 파산과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선생님께서 설명과 피드백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큰 실수 없이 업무를 해낼 수 있었다. 보조업무는 신청서에 미비된 첨부서류를 파악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일과 제출된 진술서와 재산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일이었다.

실습을 끝내면서 나에게 시작하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로스쿨은 여전히 포기상태이다. 경제적 문제 등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강해졌다. 전화를 받다보면 정말 간단한 법률지식을 몰라서 불안해하시거나 혹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은 비싸고 거리감이 있어 방문하기가 힘들다고 여기셨다. 법률서비스가 좀 더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꼭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될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덕분에 그리게 된 나의 미래이다.

가정상담1709 2017.9.7 2:37 PM 페이지28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상·담·소 · 소·식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설 역사 전시실 개관

'Since 195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

상담소는 지난 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연중 기념 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으며, 본소 강당에서 성황리에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이 날 행사가 진행된 본소 강당에서는 10월 12일 열린 기념식을 전후하여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60주년 기념 전시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展 –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 를 열어 사진과 그림을 통해 상담소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본소는 이 기념 전시회를 일부 보완하여 상설 역사 전시실을 개관하였다. 본소 강당 복도 벽면을 활용한 이 전시실은 'Since 195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억압의 땅에 평등의 씨앗을 심다' 를 제목으로 본소의 주요 연혁을 먼저 소개하고 연대별로 주요한 역사적 사진과 장현실 작가의 그림을 매치하여 구성하였다. 사진과 그림 액자는 모두 75개이며 여기에 사진과 그림 180여점을 담았다. 이 전시실이 상담소를 찾는 이들에게 상담소의 역사와 사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사진 2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리걸클리닉Ⅱ」개강

8월 29일, 본소 곽배희 소장이 담당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과목「리걸클리닉Ⅱ」의 개강 수업이 본소에서 진행되었다. 본 과목은 법률구조법인인 본 소에서의 법률상담 참관을 통하여 실제 법률가가 만나는 상담사례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법률 분야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파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체험케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구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전문법조인의 자질을 고양하고 리걸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은 강의, 법률상담 참관(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소 상담실), 상담참관 사례 발표와 토론 및 강평 등으로 계획되었고, 곽배희 소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수업에서 곽배희 소장은 본소 소개 및 법률구조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이어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상담참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참관 일정을 수립하였다. 본 과목은 16주로 계획되어 있으며 12월 12일 종강한다.

충청북도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 본소 방문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 진흥원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직원 및 상담사들 (김정운 팀장 외 7명)이 본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상담소 전체를 둘러보고 곽배희 소장과 이혼소송 관련 판례 동향 및 본소의 가정폭력, 이혼, 양육비 등 가족 관련 법률 상담, 화해조정, 법률구조 및 기관 연계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지난 8월 24일에는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부부의 거짓말, 거짓말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녀가 거짓말을 하는 계기에는 차이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는 것도 결국 생존에 유리함 때문으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 역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은 투명성에 있는 것으로 부부 사이 역시 선의의 거짓이 아닌 거짓이 많다면 그 삶은 불안정하고 결국 관계는 깨지게 될 것이라며 부부간의 솔직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대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부부사이를 강화시키는 길이라며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0여명이 참석하였고 부부간에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9월 28일 (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8.21. 학교폭력예방교육 – 숭의여자중학교
가정폭력예방교육
– 최수진 상담위원

8.25. 보현의집 노숙인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정연이, 전규선 상담위원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7.3 ~ 8.31)
김지나, 김여운, 이유진, 성하윤

●동국대학교 현장실습(7.3 ~ 8.25)
김혜정, 설나라, 이윤희, 김지희, 신주현, 정세욱,
정재원, 배준모, 이윤복, 김혜림
전해슬, 강수지, 서정욱, 정창순, 조태현, 최민서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장민수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 23일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사건에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였다. 8월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파산면책사건 법률구조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정연이 · 전규선 상담위원이 참석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오선근 법률지원팀장과 이상철 · 박진영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16일과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이대 법전원 강의 시작

본소 곽배희 소장은 8월 29일 본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과목 「리걸클리닉Ⅱ」의 개강 수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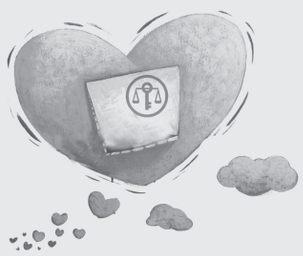
가정상담1709 2017.9.7 2:37 PM 페이지30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고맙습니다

2017년 8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김인숙,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강종협, 김민아, 김서아, 김영주,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오윤정, 윤원섭, 이혜민, 장세호, 전형정, 진승기, 홍수아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진아, 박세리, 송미란, 이승주, 장주용, 전성배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수민, 맹형규, 박주연, 이민주, 이현지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김경훈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위탁 가정폭력가해자 12명 대상으로 교정 · 치료프로그램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형사조정을 8회 실시하였다. 8월 26일~27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힐링캠프를 실시하였다. 정수경, 정이수, 장경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1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9회, 광주시법원 5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5회 실시하였다. 성남시 정보문화센터,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9회 배포하였다. 박지훈, 김승구,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이혜민, 임상준, 강은혜, 장수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익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8월 23일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9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구민혜, 김소이, 김정혜, 김춘희, 김현명, 김현수, 박지현, 박지훈, 박진우, 소윤수, 이홍재, 임용호, 정원진, 한두환, 허정택,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8월 1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회, 협의이혼상담을 1회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서보람, 이보향, 나득주, 유수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위탁 가정폭력행위자 12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장상현, 박진석, 임유정, 이동건, 홍지혜, 여지은, 김영옥, 고승현, 박수열, 심미숙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8월 25일 법률구조 변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 · 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8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철우, 강은실, 홍강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8월 24일 청주시내 청소년광장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22명).

춘천지부

춘천시지원사업으로 강원중학교, 서상중학교 학생 420명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생활법률 강좌를 실시하였다.

2017년 7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7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559건으로 본부가 7,791건, 지부가 5,768건이었다.

본부는 7,280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19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51건 · 소송구조 4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563건 · 화해조정 1,117건 · 소장 등 서류작성 36건 · 소송구조 52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7,28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6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친생자존부(1.6%→1.7%), 입양(1.1%→1.3%), 혼인무효 · 취소(0.5%→0.6%), 이혼무효 · 취소(0.2%→0.4%), 유언 · 상속(4.7%→5.2%), 가족관계등록부(2.3%→2.7%), 개명(0.3%→0.5%), 성변경(0.7%→1.0%),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가 0.4%로 가장 많았다.

본부의 법률상담 7,28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51건(14.4%), 전화상담 6,074건(83.4%), 통신 및 인터넷상담 154건(2.1%),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8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441			
법률상담 (6,980)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215	5,582	182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288	138	35	

* 2017/8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4,439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합계			
서울(본부)	7,791	1,051	6,074	154		지상 1	7,280	319	151	41
강 릉 (033) 652-9555	164	141	21				162		1	1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309	57	59				116	188	1	4
군 산 (063) 442-1560	132	59	32				91	40		1
대 구 (053) 745-4501	532	96	14	3	1	출장 59	173	354		5
대 전 (042) 520-5258	217	35	180				215		2	
동 해 (033) 535-0188	101	43	57				100			1
목 포 (061) 273-2514	186		180	3			183	1		2
부 천 (032) 667-2314	325	58	196				254	71		
성 남 (031) 707-6661	317	197	60	1		출장 12	270	39	2	6
수 원 (031) 243-4600	544	149	215	2		출장 54	420	117	2	5
순 천 (061) 753-9910	205	57	140				197	8		
중 구 (02)2238-6554	301	210	89				299			2
안 동 (054) 856-4200	82	9	40			출장 4	53	29		
울 산 (052) 246-9568	146	29	109				138		6	2
익 산 (063) 851-5113	267	73	185			출장 3	261		5	1
인 천 (032) 865-1120	368	176	164				340	9	2	17
전 주 (063) 244-2930	193	124	56	1	8		189		3	1
정 읍 (063) 535-3705	114	40	59				99	13		2
진 주 (055) 746-7975	170	39	87				126	43	1	
창원 · 마산 (055) 261-0280	318	181	78				259	55	3	1
청 주 (043) 257-0088	269	51	87				138	126	5	
춘 천 (033) 257-4688	100	44	6			출장 50	100			
태 백 (033) 554-4004	67	26	20			출장 21	67			
평택 · 안성 (031) 611-4251	133	59	33			출장 19	111	18	3	1
제 천 (043) 644-5690	131	51	80				131			
포 항 (054) 283-7555	77	8	63				71	6		
지부총상담	5,768	2,012	2,310	10	9	출장 222	4,563	1,117	36	52
총 상담	13,559	3,063	8,384	164	9	출장 222 지상 1	11,843	1,436	187	93

*** 2017/7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8,081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275

담당 : 고미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50세)와 피고(남, 56세)는 1988년 6월 경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여 29세, 남 19세)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당시 원고와 함께 봉제업 일을 하였으나 첫째 자녀 출생 이후 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용직 일을 하였다. 일용직으로 얻은 수입의 대부분도 음주와 유흥 등에 지출하였고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에는 무관심하였다. 또한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에게도 상해를 입혔으며 2016년 6월 경에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비 및 양육비를 마련하는 등 꿋꿋이 자녀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피고의 음주와 폭행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5.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6. 7. 3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정에 대해 무관심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325

담당 : 김재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55세)는 1995년 4월 경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남 22세, 여 18세)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생활비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준 적이 없었다. 원고가 생활비를 언급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원고 혼자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야 했다. 그러던 중 2012년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던 주택이 압류되었고, 2015년에는 피고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원고의 통장거래마저 중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을 남겨둔 채 도박장을 다녔으며 이후 중국에서 지내면서 가정에는 무관심 하였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7. 1.부터 사건본인이 만19세에 이를 때까지 월 40만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해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6-442

담당 : 박현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0세)과 피신청인(남, 50세)은 이혼부부로, 슬하에 자녀 두 명(남, 23세, 여, 20세)를 두었다. 혼인 생활 중 피신청인은 외도를 하며 다른 여성과 이중생활을 하였고, 도박을 하며 사채 빚도 생겨 신청인과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때문에, 신청인은 생활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계속해야 했다.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1년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에 신청인은 조서에 따른 과거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인용결정(제주지방법원 2016.10.3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호*** 협의이혼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 중 18,700,000원을 지급하되, 2016.11.30. 금 3,700,000원을, 2016.12.31.부터 2017.4.30.까지 월 3,000,000원씩을 매월 말일 분할하여 지급하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 · 지상 · 순회 · 인터넷 · 출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양육자인 부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한 조정성립

법률구조 2016-443

담당 : 장진호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9세)과 상대방(남, 54세)은 2012년 6월 상대방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였다.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남, 15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 및 욕설을 일삼았다. 또한 상대방은 2016년 8월경 사건본인이 학교성적을 위조하였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서 내쫓아,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집으로 피신하여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두려워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3.7.)

1. 사건본인의 공동친권자로 청구인 및 상대방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3.31.부터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는 전날까지 매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마지막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를 진 탈북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7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2006년 탈북한 이후 주택공사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였다. 탈북자 신분으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 일용직을 전전하던 신청인은 2010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았고, 이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났다. 이후 2013년경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지만 2016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진단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납입액을 내지 못해 워크아웃도 폐지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받는 월 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어 더 이상의 소득활동은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신청인은 변제가 어려운 채무에 대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7.20.)

채무자를 면책한다.

하지를 절단해 근로능력이 없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81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 (남, 59세)은 1991년경 배우자(여, 60세)와 혼인하였다. 행복한 신혼생활도 잠시 1992년경 신청인은 버거스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해야만 했다. 이후 근로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신청인은 배우자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배우자마저 허리디스크를 앓으면서 근로활동이 어려워지자 소득이 끊긴 신청인 부부는 대출을 받아 노점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점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매우 미미했고, 2011년경 노점을 그만두면서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약 8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저소득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은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8.1)
채무자를 면책한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사업을 핑계로 아내에게 대출을 받게 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7-94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59세)는 1982년 11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원고의 사회생활에 대해 간섭을 하며 이유 없는 의심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반발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모텔 사업을 시작하며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는 전혀 갚지 않았다. 원고에게 모든 채무를 떠맡기고 피고는 가출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가압류를 당했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자 피고는 다시 집에 들어와 원고를 학대하였고, 심지어 아들 부부 앞에서까지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계속되는 이혼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며 난동을 피웠다. 2017년 2월경 피고의 폭력으로 원고는 코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7.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17.8.31.까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출하여 17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109
담당 : 심미숙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2세)와 피고(여, 57세)는 1980년 4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0년 9월 말경 가출하여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 뒤, 피고의 행방을 알아보았지만 처가 식구들 역시 피고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결혼할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되돌아오길 바랐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5.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후 채무독촉장을 받은 20대 여성에 대해 면책확인 판결

법률구조 2017-140
담당 : 김상군 변호사
사건명 : 면책확인의 소

내용 : 원고(여, 25세)는 2016년 4월경 면책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월경 피고(○○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고,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2년 8월경 원채권자(△△캐피탈대부)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소지와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파산 신청을 위해 신용평가정

보와 은행연합회에 부채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이 조회 되지 않아 그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누락되었던 채무에 대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6.16.)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인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72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7세)은 냉난방 설비업을 하던 중 경기가 어려워지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이어 오다 적자를 면하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경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었고, 집안의 물건들도 모두 강제집행을 당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기술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재기를 해보고자 했으나, 2016년경부터 학원의 사정도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배우자 역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반찬가게를 운영해 보았으나, 그 운영이 여의치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 현재 신청인은 과거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월 22만원의 장애연금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월 5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8. 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 · 설 · 이 · 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불행한 자, 약자 등
번민하는 이웃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가정의 민주화와 양성평등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가정의 평화는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얻은 상담소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2017년 9월 교육강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장벽을 낮추고
시민에 좀 더 다가서는 출장 법교육

2017년 9월 9일(토)
서울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내

▶ 일 시 : 2017년 9월 9일(토) 10시 ~ 17시
▶ 장 소 : 서울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내
▶ 내 용 :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및 교육사업 안내
가족법 퀴즈를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실시

2017년 9월 14일(목)
서울, 코엑스 3층 E홀
「100만호 임대주택, 100만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 내

▶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9시 ~ 18시
▶ 장 소 : 서울, 코엑스 3층 E홀
「100만호 임대주택, 100만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 내
▶ 내 용 :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및 교육사업 안내
가족법 퀴즈를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실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들의 경제적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산 · 면책 ·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과 명의도용피해 방지 등의
법 교육 및 전문상담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 9월 16일(토)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내용

1.「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2.「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9월11일 / 9월25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일시 : 2017년 2월~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둥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1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캐서린 한 대표, 한승희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9월 14일 (목)	부부사이의 대화: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10월 12일 (목)	사춘기 자녀가 "싫어"라고 말할 때
11월 9일 (목)	자기강요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12월 14일 (목)	축하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 02-782-3601 F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상담표지-9월 2017.9.7 2:41 PM 페이지1 mac1
검정 사이안 마젠타 노랑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등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장벽을 낮추고 시민에 좀 더 다가서는 출장 법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